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친교 안내

친교 모임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한 달에 한 번(매월 첫째 주)으로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꽃 봉헌해 주신 분들〉

김명숙 글로리아, 최영숙 에스터, 송미라 글라라

● 성가책 판매

수정 보완판 새 가톨릭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 성가 대 \$30, 가톨릭 성가 중 \$25

●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 순례 13일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 24일(토)

비용 : \$3,780 신청비 : \$1,500

코스 : 이집트(룩소, 시나이), 이스라엘 요르단(페트라)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그리고 김 레지나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안내

레지나 구역이 로사리아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구역장으로 권혜원 로사리아 자매님이 선출되어 앞으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 구역 모임

1) 엘리사벳 구역 : 8월 4일(토) 오후 7시에 정경재 엘리사벳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2) 라파엘 구역 : 8월 5일(일) 미사 후 김성철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꽃봉헌과 미사봉헌은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자매님(484-995-9638)

* 친교명단을 친교실에 공지하였습니다.

* 이번달 상품권판매는 로사리아 구역 입니다.

이번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라파엘 구역 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로사리아 구역 입니다.

(친교실 청소는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Church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의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오후 12시

치유미사(Healing Mass)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평의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 42-44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2독서	에페소서 4, 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요한 6, 1-15
봉헌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성가	500번 평화의 하느님
퇴장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17주일 7월 29일	연중 제18주일 8월 5일	연중 제19주일 8월 13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김재숙 제노베파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권혜원 로사리아
친교봉사			

오늘의 묵상

예수님의 빵의 기적 이야기에는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 담겨 있습니다. 장정만도 오천 명이 넘는 굶주린 군중에게 나누어 줄 빵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셈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필립보가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세상의 논리를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임을 표징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수많은 군중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먹고 남긴 조각을 모았을 때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는 성경의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겨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초자연적 기적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알 듯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기적의 결과였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빵의 기적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빵으로 허기를 채운 것이 아니라, 군중이 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찼고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도는 하느님의 충만한 영광을 맛본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겸손과 은유, 인내심과 사랑, 평화와 일치를 말하며 깊은 영적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은 내 배를 불리고 내 행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례와 믿음으로 묶여 한 분이신 주님과 성령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저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일치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일치하는 신앙인이 성령께 받은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2분 교리

신품 성사란? Holy Orders

교회 내의 신자들 중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일할 봉사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신적 능력과 권위를 받는 성사입니다. 성품 성사를 받는 이들은 부제, 사제, 주교가 되어 하느님 백성을 위해 일하도록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 자발적으로 응답을 한 이들입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 연미사 >

지향 : 최 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봉헌자 : 안우풍 부르노

< 생미사 >

지향 : 안토니 카탈도 부자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위해서
봉헌자 : 최미라 미카엘라

우리들의 주일정성 < 7월 22일(일) >

봉헌금	\$430.00
교무금	\$900.00
송현배(7-9), 안우풍(7-9)	
수요 치유미사(7월 18일)	\$95.00
Total	\$1,425.00